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석연휴에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중에서도 제사지내기와 재산나누기 등으로 가족 간에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빚어진 몇몇 사례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동안 쌓여 있던 해묵은 갈등이 하필이면 모두가 즐겨워야 할 명절에 폭발하는 사회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경일지도 모르겠다.

를 지내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되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 알다시피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이때쯤이면 고향집을 찾는 귀성차량들로 전국 방방곡곡의 도로가 주차장이 되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그러나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폭력과 이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명절 나기의 사회적 의미를 의심케 하는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때마다 부엌에서 상심하고 한숨짓던 중부 어머니의 축 늘어진 뒷모습이 지금도 가슴 먹먹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명절날의 고향나들이는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한다. 모처럼 만난 친

인척들은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취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반복함으로 써 그들의 가슴에 큰 구멍을 뚫는다. 이는 도회지에서 학업을 마친 자식들이 점점 더 고향집 찾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불편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명절과 고향의 의미가 뭔가. 취직이나 결혼을 할 때마다 '도대체 명절이 뭐 길래', '제사가 뭐 길래', '땡이 뭐 길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명절날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사음식이나 재산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사대질을 하며 다투던 집안 어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의 행동이 참으로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내려간 고향집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성가시고 짜증나는 말이나 들어야 하는, 감옥 아닌 감옥이 되고 만다면 젊은이들에게 고향과 명절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소외되고 말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명절과 고향의 의미를 절대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인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은 우리사회의 가족관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입법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늙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학대까지 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통칭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명절 혹은 효이 대물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름다운 명절전통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새기는 균형감 있는 삶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게 일방적으로 주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평등한 인간관계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불교회관에서 '광주·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 64차 포교총회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향후 포교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의체 가칭 '광주전남포교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요 발제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주>

발언대

호남 포교 활성화 어떻게

광주·전남포교위원회를 만들자



현진스님
대흥사 교무국장

광주·전남지역은 4개의 교구본사와 200여개의 사찰 수에 비해 포교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서로 다른 포교노력은 일관성 있는 포교의 방침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허공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소리를 가슴 속에 이제 불교가 화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관성 있는 포교방안의 강구를 위해서 광주·전남지역의 4개 교구본사의 유대관계를 위한 통합적인 의결기구 광주·전남지역 포교위원회(가칭)조성을 하루 빨리 이뤄야 한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신행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이 만들어 지는 광주·전남지역 포교위원회(가칭)에 편입하여 일관성 있는 포교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이다.

오늘날의 불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옛 정신을 살려 대중 속에 있는 불교, 항상 곁에 있는 불교를 위해 문화와 예술부분부터 친숙한 불교의 이미지 변화를 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사찰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포교를 시작해야 광주·전남지역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호남 맞춤형 살린 포교 필요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원
상임연구원

광주 전남지역은 개방성과 진취성이 강한 지역이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적 토양이 기름진 곳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수용성 또한 타지역보다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호남지역에서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고 새롭게 변모해 나가는 신(新)불교 운동을 전개해 내야 한다. 호남불교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종교적 신념과 희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호남의 지역정서에 맞게 호남불교가 새로운 구원의 종교요 서민들을 위한 개혁의 종교임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속도로 고령화로 접어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015년도에 실시한 전남지역 사회변화 통계를 보면 전남도민이 생각하는 최우선 복지정책은 '노인복지'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 정도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심사찰에 심터를 마련하여 지역민과 신도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구 분포 맞는 사찰 배치돼야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처장
본지 광주전남지사장

전남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불교신자와 사찰수의 문제이다. 인구 1만 명이 되지 않은 지자체에 본사급의 전통사찰이 존재하지만, 정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정상적인 외형을 갖춘 사찰을 보기 힘들다.

이는 공급과 수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인구 분포와 더불어 사찰이 발전해야 하지만, 도시지역의 신규사찰의 증가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보더라도 도시지역에 일정정도 외형을 갖춘 종교시설에는 신자들이 방문한다.

광주전남지역 불교의 활성화는 결국 인구분포에 맞는 사찰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 사찰에서 포교의 다양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 등 다양한 단체와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것이 호남불교발전의 기초가 된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시설의 완비가 중요하겠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사회다. 불교는 교리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사회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다. 지역불교의 발전은 결국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각 분야별 상호협업체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社說

우리말 한글, 불교가 지켜가자

최근 신조어를 보면 100% 이해하기가 어렵다. '깡끼빠빠', '버카충' 등을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언어는 시대마다 바뀌고, 신조어들이 국어사전에 등재되고 있지만 그 변화 수위가 높다. 한글을 지켜가는 데 불교계의 역할은 지대했다.

범어사에서 출가했던 불교지성인 허영호 前 동국대 학장의 친필원고 <조선어기원론>이 공개됐다. 허영호의 <조선어기원론> 친필 원고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직후 한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활동한 불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1914년 당시 부산 범어사는 한글 영경화 사업을 위해 조선어 강습으로 한글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총 24명의 한글교사 및 전문가가 배출됐으며 허영호 선생도 그 중 하나였다. 이후 범어사 조선어 강습 졸업생들은 불교 중요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허영호 선생은 <불교성전>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 그 외 많은 불서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세종대왕이 우리말인 한글을 창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불교계 학생들이었다. 정광 고려대 문화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한글의 발명>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정광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는 고대 인도에서 발달한 음성학인 '비가라문(毘伽羅論)', 즉 성명학(聲明學)이 알려진 상태였다. 정 교수는 그로 인해 신미대사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님들은 역경가지자 음성학자였다. 각 국의 스님들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또는 자신의 나라말로 옮기며 음성학에도 조예가 깊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참여했고, 또 인도음성학, 불교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갔다. 훈민정음 <언해본>에 붙서인 <월인석보>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이유다. 또한 <월인> 및 <석보> 간행에 신미대사와 김수운의 두형제를 비롯해 여러 학승들과 불교를 숭앙하는 유생들이 참여했고, <월인석보> 신편을 간행할 때는 신미, 수미, 설준, 흥준 등 10명의 스님들이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한글 창제 이후 불교는 한글을 지켜가는 역할을 했다. 언어 파괴가 심각한 상황인 지금,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한 불교 교류 꾸준히 지속돼야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그래서 어느때보다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최근까지 남북관계는 녹록지 않았다. DMZ 지뢰폭발 사고와 대북 심리전 재개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극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돼 이산가족 상봉을 눈앞에 두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도 남북교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북원 8주년 기념 및 조국통일 기원 남북한 공동법회를 함께 진행한다. 양측이 10월 2일 개성서 실무회담을 열고 지난 8.25 합의에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형성

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는데 지원한 천태종도 역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11월 3일 남북한 공동으로 영통사서 기념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도 10월 3일 개성 시내서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측은 1박2일간의 방북 일정은 천태종에 제안했으며, 방북단 규모도 영통사 복원 10주년에 담긴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하며, 남북한 기쁘게 부풀어 오른 상태다. 불교는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 전통문화로 종교다. 이번 공동법회가 일회성 단순 행사에 그치지 말고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3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 대출력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력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가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